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년 6월 15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여름 콘서트 시즌에 미성년 음주 및 가짜 신분증에 대한 뉴욕주 차원의
엄중한 단속 시행 발표**

주 기관들이 법집행 기관들과 제휴하여 가짜 신분증을 사용한 알코올 구입을 예방

미성년 고객은 체포 대상이고 최소 90일 면허 정지될 수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미성년 음주를 저지하고 가짜 신분증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현행 노력의 일환으로 여름 콘서트 시즌 동안과 기타 미성년 핫스팟에서 합동 단속 실시를 발표하였습니다. 단속은 다양한 콘서트 장소와 주 전역에서 젊은 성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예고 없이 이뤄질 것이며 [자동차부](#) 현장수사과가 [주 주류청](#), [뉴욕주립공원](#) 경찰, [뉴욕주 경찰](#) 및 지역 법집행 기관의 협조를 통해 수행할 것입니다.

“미성년 음주와 그 후의 잘못된 결정은 삶을 바꾸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단속으로 우리는 뉴욕주에서는 이 행동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피할 수 있는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계 단속은 콘서트뿐만 아니라 바와 음주 업소, 행사 및 기타 미성년자 핫스팟을 겨냥하여 연중 실시되는 DMV 이니셔티브인 예방 작전의 일환입니다. 예방작전 기간 동안에 주 수사관들이 주 주류청 및 법집행 요원들과 협력하여 신분증을 체크할 것입니다. 알코올을 구입할 의도로 가짜 신분증 또는 허위 문서를 사용한 것으로 발각된 21세 미만 고객은 체포되고 면허증을 최소 90일 또는 최대 1년간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Cuomo 지사는 유사한 [전주적 단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Saratoga Performing Arts Center (SPAC), Genesee 카운티의 Darien Lake Performing Arts Center 및 Canandaigua의 CMAC를 포함한 콘서트 장소들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예방 작전이 Long Island의 Nikon at Jones Beach Theater (Jones Beach 주립공원)를 포함한 추가 장소들로 확대될 것입니다.

“미성년 음주 때문에 너무 종종 무고한 희생자와 젊은 목숨을 잃고 가족의 꿈이 산산조각납니다”라고 **Kathy Hochul** 부지사가 **말했습니다**. “예방 작전에 의거 뉴욕주는 미성년 음주를 저지하고 가짜 신분증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엔터테인먼트와 이 주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기고 무사히 귀가하십시오.”

DMV 차장 Terri Eg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DMV, SLA, 및 법집행 기관이 여름 콘서트 장소에서 신분증을 체크할 것임을 여름 콘서트 시즌에 앞서 발표함으로써 우리는 젊은이들이 가짜 신분증을 입수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알코올을 구입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없애기 바랍니다. 골자는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봐야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체포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90일 면허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특히 여름 달에는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수행하도록 도와주시는 SLA, 뉴욕주립공원, 전주의 법집행 기관들에 있는 우리 파트너들에게 감사합니다.”

뉴욕주립공원 경찰은 2016 Saratoga Performing Arts Center Live Nation 콘서트 시리즈 동안 Saratoga Spa주립공원에서 뿐만 아니라 Jones Beach의 여름 콘서트 시리즈 동안 알코올 관련 불법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합동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DMV, 주 주류청과 가짜 신분증 적발 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 이외에 정복 및 사복의 공원 경찰관들이:

- 공원 그라운드, 주차장 및 콘서트 장소를 순찰하면서 필요한 체포를 하고, 딱지를 떼며, 차량을 몰수하고, 알코올 음료를 압수 폐기하며, 위반자를 공원과 콘서트 장소에서 퇴거시킬 것입니다.
- 무표식 용기에 담긴 알코올을 탐지하기 위해 피동 알코올 스크리닝 기기(Alco-Sensor FST)를 사용할 것입니다.
- 알코올 음료 소지 및 음주 도취 운전의 적발을 위해 도로와 입장 장소에서 운전자를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음주 도취 운전자는 즉각 체포될 것이며 차량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SPAC 및 Jones Beach 장소 내에서 알코올을 구입하려면 팔찌가 요구됩니다. 팔찌는 시설 내에 설치된 ID 스테이션에서 합법적 신분증을 제시하고 얻습니다. DMV 및 주 주류청의 수사관들도 휴대용 문서 확인기를 사용하여 백광, UV광 및 적외선 광원을 사용하는 필드에서 의심 문서를 검사할 것입니다.

주립공원 경찰 책임자 David Herrick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립공원 경찰은 우리 법집행 기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이번 여름에 주립공원 콘서트 시설 방문객들이 안전한 경험을 즐기도록 할 것입니다. 미성년 음주, 도취 운전 및 불법 약물 사용 또는 소지로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용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방 작전은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고속도로 안전을 향상하고 차량 추돌로 인한 사람과 심각한 부상을 줄이기 위해 뉴욕주에서 교통 안전 활동을 조율하고 연방 고속도로 안전 기금을 현지 기관, 주정부 기관 및 비영리 기관에게 제공합니다. 주지사는 1월에 미성년 음주를 저지하기 위한 DMV 수사관들의 2015년 노력으로 근 760명을 체포하고 750여 건의 허위 신분증을 압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DMV는 주 주류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2015년에 4회의 공동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중 2회는 주점의 주류 면허 취소로 이어졌습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하에 주 주류청은 주류 판매 피면허자에게 책임감을 불어넣는 교육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엄중 단속하는 단속 활동을 대대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주 주류청에 의한 기소는 2015년에 1,552건으로서 2010년 1,036건 위반에서 50% 증가하였습니다. 주 주류청은 또한 미리 알코올 교육 인지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알려서 미성년자에게 알코올을 판매하는 행위를 줄이고 면허업체가 위반을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 횟수도 늘렸습니다.. 면허업체와 관련 직원들이 이수한 교육 건수는 2010년 5,014건에서 2015년 14,549건으로 거의 세 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뉴욕주 주류청장 Vincent G. Bradl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알코올을 미성년 청소년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뉴욕주 주류청의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코올이 책임 있는 성인에게만 판매되고 구입되도록 하기 위해 DMV, 공원 및 지역 법집행 기관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선에서 일할 것입니다.”

DMV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